
2021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폴란드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현황

1. 농업현황

가. 농업규모

□ 2020년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Gross Added Value, GVA)는 548억 1,100만 즈워티(한화 약 16조 2,471 억 원)로 전년 대비 1.4% 증가

- 이는 전체 총부가가치(GAV)의 2.6% 수준으로,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0.2%의 감소세를 보임

<농업 부문 총부가가치(GVA) 및 비중(2016~2020)>

(단위 : 백만 즈워티,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GVA ¹⁾	전체	1,646,287	1,747,525	1,857,482	2,016,064	2,045,244	1.4	5.6
	농업 ²⁾	47,281	57,154	49,611	53,127	54,811	3.2	3.8
	비중	2.8	3.2	2.6	2.6	2.6	△3.7	△0.2

* 주1 : 당해년가격 기준 GVA

* 주2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폴란드 통계청(2021. 6월 기준)

- 2018년 농촌인구 1,534만 4,000명, 농업 고용인구 238만 5,600명으로 집계됨
 - 농촌인구는 2015년 이후 연평균 0.2% 수준으로 증가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농업 고용인구는 연평균 0.1%의 미세한 감소세를 보임

<농업 고용인구(2015~2018)>

(단위 : 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전년비 (17/18)	연평균 (15/18)
전체 고용인구	14,504.3	149,644	153,807	15,615	1.5	2.5
농업 고용인구	2,389.4	2,391	2,392	2,389	△0.3	△0.1
농업 인구비중	16.5	16.0	15.5	15.3	-	-

* 주1 : 폴란드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2021.09.07. 기준)

* 출처 : 폴란드 통계청(2021. 9월 기준)

나. 주요 생산품목 및 규모

□ 2019년 농축산물 생산 규모 전년 대비 7.0% 증가한 1,205억 4,820만 즈워티(한화 약 36조 7,973억 원)로 집계

- 농산물 생산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589억 8,280만 즈워티(한화 약 18조 45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1%의 증가세
- 축산물 생산액 전년 대비 2.9% 증가한 615억 6,540만 즈워티(한화 약 18조 7,928억 원)로 연평균 7.8%의 증가세를 보임

<농업 총생산액(2015~2019)>

(단위 : 백만 즈워티, %)

구분	2015	2017	2018	2019	전년비 (19)	연평균 (15/19)
농업 총생산액	98,638.3	115,624.7	112,637.9	120,548.2	7.0	6.9
농산물	49,436.1	56,106.6	52,778.5	58,982.8	11.8	6.1
(비중)	48.9	48.5	46.9	48.9	-	-
축산물	49,202.2	59,518.1	59,859.4	61,565.4	2.9	7.8
(비중)	40.8	51.5	53.1	51.1	-	-

* 주1 : 폴란드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2021.09.07. 기준)

* 출처 : 폴란드 통계청 농업통계(Agriculture in 2019)

□ 곡물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사탕무, 감자 등이 주로 생산됨

- (곡물) 전년 대비 15.7% 증가한 3,354만 7,000톤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 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1,202만 4,000톤으로, 전체 곡물 생산량의 35.8% 차지
 - 호밀 생산량은 307만 9,000톤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으며, 전체 곡물 생산량의 9.2%를 차지
- (사탕무) 전년 대비 3.5% 감소한 1,334만 9,000톤이 생산되었으며, 최근 5년간 생산량은 연평균 0.3%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
- (감자) 전년 대비 39.7% 증가한 905만 6,000톤이 생산되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

〈주요 농산물 생산량(2016~2020)〉

(단위 : 천 톤,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곡물 전체	29,849	31,925	26,780	28,990	33,547	100.0	15.7	3.0
밀	10,828	11,666	9820	11,012	12,024	35.8	9.2	△2.8
호밀	2,200	2,674	2,167	2,461	3,079	9.2	25.1	△4.1
옥수수	N/A	4,022	3,864	3,734	N/A	N/A	N/A	△3.6
사탕무	13,524	15,733	14,303	13,837	13,349	100.0	△3.5	△0.3
감자	8,624	8,956	7,312	6,482	9,056	100.0	39.7	1.2

* 출처 : 폴란드 통계청 농업통계연보(Statistical Yearbook of Agriculture)(2021. 6월 기준)

□ 육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6,382천 톤으로, 이 중 계육 생산이 절반 이상(51.1%)을 차지

- 계육 생산량은 전년도와 유사한 326만 4,000톤으로 집계
 - 뒤이어 돈육 생산량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233만 톤으로 집계되어 전체 축산물 생산량의 36.5%를 차지
 - 우육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77만 6,000톤으로 집계되었으며, 미미한 수준으로 말고기(0.1%), 송아지 고기(0.1%), 양고기(0.02%)가 생산
- 우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21억 800만 리터, 달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2% 감소한 5억 2,500만 개로 집계

〈축산물 생산량(2017~2020)〉

(단위 : 천 톤, 백만 리터, 백만 개, %)

구분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7/20)
육류 (천 톤)	전체	4,815	5,186	6,234	6,382	100.0	2.4	9.8
	가금류	2,316	2,597	3,263	3,264	51.1	0.03	12.1
	돼지	1,894	1,973	2,153	2,330	36.5	8.2	7.1
	소	563	571	800	776	12.2	△3.0	11.3
	말	-	-	10	7	0.1	△30.0	-
	송아지	-	-	5	4	0.1	△20.0	-
	양	-	-	3	3	0.02	-	-
우유(백만 리터)		13,305	13,768	11,827	12,108	100.0	2.4	△3.1
달걀(백만 개)		10,998	11,814	823	525	100.0	△36.2	△63.7

* 주 : 육류 생산량은 도축 후의 무게를 기준으로 산정

* 출처 : 폴란드 통계청 농업통계연보(Statistical Yearbook of Agriculture)(2021. 6월 기준)

2. 수출입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297억 7,533만 달러(한화 약 33조 7,949억 원)로 전년 대비 7.1% 증가
- 주요 수출국은 독일(21.9%), 영국(10%), 네덜란드(5.6%)로 전년 대비 모두 수출 증가세를 보임
 - 독일로의 수출액은 65억 1,156만 7,000달러(한화 약 7조 3,743억 원)로 전년 대비 8.3% 증가
 - 對영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29억 8,283만 9,000달러(한화 약 3조 3,780억 원), 네덜란드로의 수출액 전년 대비 3.6% 증가한 16억 7,937만 6,000달러(한화 약 1조 9,018억 원)로 집계
 - 폴란드의 對한국 수출액은 6,145만 8,000달러(한화 약 696억 원)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나, 201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9.8%로 증가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22,184,828	25,292,047	27,556,765	27,790,869	29,775,330	100.0	7.1	7.6
1 독일	4,734,011	5,558,548	6,066,256	6,014,139	6,511,567	21.9	8.3	8.3
2 영국	2,158,747	2,502,794	2,818,932	2,776,632	2,982,839	10.0	7.4	8.4
3 네덜란드	1,140,430	1,509,633	1,722,371	1,621,530	1,679,376	5.6	3.6	10.2
4 프랑스	1,132,382	1,232,430	1,435,274	1,450,814	1,610,108	5.4	11.0	9.2
5 체코	1,567,641	1,399,919	1,502,935	1,418,522	1,402,889	4.7	△1.1	△2.7
6 이탈리아	1,078,788	1,239,659	1,234,184	1,252,816	1,181,153	4.0	△5.7	2.3
7 루마니아	580,391	700,821	819,966	849,786	864,902	2.9	1.8	10.5
8 헝가리	562,296	644,571	735,016	774,753	784,614	2.6	1.3	8.7
9 슬로바키아	689,194	689,554	751,517	729,793	744,981	2.5	2.1	2.0
10 우크라이나	295,036	399,393	480,917	580,317	740,719	2.5	27.6	25.9
⋮								
48 대한민국	42,237	63,645	57,358	57,753	61,458	0.2	6.4	9.8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 주요 수출 품목은 육과 식용 설육(18.6%),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11.3%), 낙농품(9.3%), 각종 조제 식료품(8.1%) 등

- 육과 식용 설육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55억 3,432만 9,000달러(한화 약 6조 3,700억 원)로 집계
- 뒤이어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33억 4,340만 1,000달러(한화 약 3조 8,483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낙농품 수출액은 전년도와 유사(0.5%↓)한 수준인 27억 6,242만 3,000달러(한화 약 3조 1,795억 원)가 수출
- 이 외에도 조제 식료품 24억 2,533만 8,000달러(한화 약 2조 7,916억 원), 어류 및 육류 조제품 22억 3,871만 2,000달러(한화 약 2조 5,768억 원) 등이 수출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22,184,828	25,292,047	27,556,765	27,790,869	29,775,330	100.0	7.1	7.6
1	육과 식용 설육 (HS Code 02)	4,516,167	5,420,172	6,024,792	5,857,193	5,534,329	18.6	△5.5	5.2
2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HS Code 19)	2,247,194	2,631,687	2,921,931	3,121,814	3,343,401	11.2	7.1	10.4
3	낙농품 (HS Code 04)	1,950,925	2,816,569	2,865,698	2,777,152	2,762,423	9.3	△0.5	9.1
4	각종 조제 식료품 (HS Code 21)	1,666,335	1,946,796	2,188,720	2,286,620	2,425,338	8.1	6.1	9.8
5	어류·육류 조제품 (HS Code 16)	1,448,083	1,772,991	2,013,195	2,009,571	2,238,712	7.5	11.4	11.5
6	코코아와 그 조제품 (HS Code 18)	1,654,985	1,621,209	1,827,032	1,943,655	2,153,442	7.2	10.8	6.8
7	곡물 (HS Code 10)	1,210,468	989,563	962,616	930,652	1,953,632	6.6	109.9	12.7
8	채소, 과일, 견과류의 부분 및 그 조제품 (HS Code 20)	1,313,867	1,390,333	1,640,896	1,554,027	1,558,122	5.2	0.3	4.4
9	음료·주류·식초 (HS Code 22)	866,844	951,495	1,102,905	1,161,866	1,349,184	4.5	16.1	11.7
10	식용 과일 및 견과류 (HS Code 08)	1,189,116	1,284,014	1,333,831	1,286,563	1,344,635	4.5	4.5	3.1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 2020년 농식품 수입액은 183억 4,802만 5,000달러(한화 약 21조 1,186억 원)로 전년 대비 5.8% 증가함

- 주요 수입국은 독일(26.0%), 네덜란드(13.1%), 스페인(7.6%), 이탈리아(5.5%) 순
 - 독일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47억 6,564만 1,000달러(한화 약 5조 3,994억 원)로 집계
 - 네덜란드산 수입액은 24억 546만 7,000달러(한화 약 2조 7,265억 원)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 스페인과 벨기에산 농식품 수입액은 각각 14억 183만 7,000달러(한화 약 1조 5,896억 원), 10억 1,593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1,525억 원)로 각각 전년 대비 9.1%, 8.7% 증가
- 한국산 농식품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818만 4,000달러(한화 약 206억 원)가 수입되었으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3,959,963	16,130,934	17,252,990	17,343,968	18,348,025	100	5.8	7.1
1 독일	3,920,545	4,638,705	4,660,754	4,625,180	4,765,641	26.0	3.0	5.0
2 네덜란드	1,910,568	2,247,193	2,434,714	2,399,932	2,405,467	13.1	0.2	5.9
3 스페인	989,699	1,137,430	1,193,413	1,299,452	1,401,837	7.6	7.9	9.1
4 이탈리아	727,175	865,855	952,445	931,039	1,015,939	5.5	9.1	8.7
5 벨기에	732,990	805,207	889,609	936,892	944,522	5.1	0.8	6.5
6 프랑스	596,641	699,909	782,397	798,600	801,602	4.4	0.4	7.7
7 영국	461,371	520,291	589,498	609,431	687,459	3.7	12.8	10.5
8 우크라이나	403,413	488,562	558,497	615,421	671,344	3.7	9.1	13.6
9 체코	557,716	596,178	622,189	607,621	656,329	3.6	8.0	4.2
10 덴마크	410,663	474,423	443,671	414,407	439,571	2.4	6.1	1.7
⋮								
52 대한민국	8,735	14,915	17,848	16,351	18,184	0.1	11.2	20.1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 주요 수입 품목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12.6%), 육과 식용 설육(9.8%), 코코아와 그 조제품(8.4%), 각종 조제 식료품(7.5%), 음료·주류·식초(7.3%) 등

- 식용 과실 및 견과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3억 2,156만 5,000달러(한화 약 2조 6,721억 원)로 집계
- 육과 식용 설육 수입액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17억 9,065만 4,000달러(한화 약 2조 610억 원)로 집계된 반면, 코코아와 그 조제품 수입액은 15억 3,683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7,689억 원)로 전년 대비 13.5% 증가
- 이 외에도 각종 조제 식료품 13억 7,101만 6,000달러(한화 약 1조 5,780억 원), 음료·주류·식초 13억 4,247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5,452억 원) 등이 수입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3,959,963	16,130,934	17,252,990	17,343,968	18,348,025	100.0	5.8	7.1
1 식용 과실 및 견과류 (HS Code 08)	1,622,051	2,018,161	2,125,004	2,059,467	2,312,565	12.6	12.3	9.3
2 육과 식용 설육 (HS Code 02)	1,687,406	1,940,372	1,995,343	1,955,290	1,790,654	9.8	△8.4	1.5
3 코코아와 그 조제품 (HS Code 18)	1,178,231	1,274,985	1,341,729	1,353,828	1,536,835	8.4	13.5	6.9
4 각종 조제 식료품 (HS Code 21)	1,111,963	1,255,645	1,393,476	1,327,247	1,371,016	7.5	3.3	5.4
5 음료·주류·식초 (HS Code 22)	847,623	1,003,906	1,144,027	1,213,609	1,342,479	7.3	10.6	12.2
6 동물성·식물성 유지류 (HS Code 15)	921,195	1,105,426	1,091,774	1,106,144	1,306,915	7.1	18.2	9.1
7 낙농품 (HS Code 04)	998,932	1,137,455	1,179,541	1,185,027	1,197,469	6.5	1.0	4.6
8 식용의 채소, 뿌리·괴경 (HS Code 07)	786,186	876,542	972,770	1,148,626	1,134,387	6.2	△1.2	9.6
9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HS Code 19)	743,023	954,162	1,011,911	1,000,046	1,075,432	5.9	7.5	9.7
10 곡물 (HS Code 20)	715,917	833,927	916,558	931,963	1,002,589	5.5	7.6	8.8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나. 한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20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폴란드 수출액은 2,037만 2,600달러(한화 약 234억 원)로 전년 대비 27.6% 감소

- 농산물 수출액은 1,797만 6,000달러(한화 약 207억 원)로 전체의 87.4% 차지
- 축산물 수출액은 10만 2,000달러(한화 약 1억 원)로 전년 대비 13.5% 증가,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78.5% 감소한 2만 2,000달러(한화 약 2,531만 원)

〈한국산 농식품 수출 규모 (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24,424	31,276	33,488	28,151	20,373	100.0	△27.6	△4.4
농산물	23,386	30,329	32,251	26,457	17,796	87.4	△32.7	△6.6
축산물	284	1	79	90	102	0.5	13.5	△22.6
임산물	148	31	50	103	22	0.1	△78.5	△37.8

*출처 : KMI 농식품 수출정보 (2021.6월 기준)

□ 주요 수출품목은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44.5%), 기타 음료(12.3%), 라면(5.0%), 물(3.0%), 조제·저장 처리한 과일 및 견과류 기타(2.8%) 등

-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한 906만 3,000달러(한화 약 104억 원), 전체 농식품(농·축·임산물) 수출액의 44.5% 차지
- 기타 음료(알코올 미함유)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8% 감소한 249만 6,000달러(한화 약 29억 원),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21만 8,000달러(한화 약 14억 원)로 집계

〈對폴란드 수출 상위 5개 품목 (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50,952	52,483	33,488	28,151	20,373	100.0	△27.6	△20.5
1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674	6,818	7,954	10,117	9,063	44.5	△10.4	91.5
2 기타 음료(알코올 미함유)	N/A	6,592	6,873	4,525	2,496	12.3	△44.8	△27.7
3 라면	667	775	1,115	1,150	1,218	6.0	5.9	16.2
4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	N/A	N/A	51	196	605	3.0	208.4	243.4
5 조제·저장 처리한 과일 및 견과류 기타	28	211	161	617	574	2.8	△7.0	113.2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1.6월 기준)

Ⅱ. 농식품 시장현황

1. 시장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성

□ 2020년 식품시장 규모는 536억 2,800만 달러(한화 약 62조 476억 원)로 전년 대비 12.8% 증가

- 신선식품이 전체 식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1%로,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311억 5,400만 달러(한화 약 36조 452억 원)로 집계
 - 육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14억 5,600만 달러(한화 약 13조 2,546억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21.4% 차지
 - 뒤이어 낙농품 및 난류 시장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76억 9,700만 달러(한화 약 8조 9,054억 원)로 집계되며 전체 시장의 1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소 시장규모는 58억 4,500만 달러(한화 약 6조 7,627억 원)로 전년 대비 11.8% 증가, 과일 및 견과류 시장규모는 48억 1,100만 달러(한화 약 5조 5,663억 원)로 전년 대비 11.9% 증가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224억 7,400만 달러(한화 약 26조 24억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41.9% 차지
 - 이 중 스낵류 시장이 20.2%를 차지하며,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08억 1,800만 달러(한화 약 12조 5,164억 원)로 집계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66억 2,000만 달러(한화 약 7조 6,627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편의식품 시장규모는 25억 2,900만 달러(한화 약 2조 9,273억 원)로 전년 대비 17.5% 증가
 - 이 외에도 소스 및 향신료 시장규모 11억 9,500만 달러(한화 약 1조 3,832억 원), 스프레드 및 당류 시장규모 10억 6,400만 달러(한화 약 1조 2,316억 원)로 집계

〈식품시장 규모(2016~2020)〉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전체	44,071	44,505	45,857	47,554	53,628	100.0	12.8	5.0
신선식품	25,943	26,216	27,002	28,001	31,154	58.1	11.3	4.7
- 육류	9,531	9,631	9,913	10,269	11,456	21.4	11.6	4.7
- 낙농품 및 난류	6,498	6,556	6,744	6,986	7,697	14.4	10.2	4.3
- 채소류	4,823	4,879	5,032	5,227	5,845	10.9	11.8	4.9
- 과일 및 견과류	3,962	4,010	4,138	4,300	4,811	9.0	11.9	5.0
- 유지류	1,129	1,140	1,175	1,219	1,345	2.5	10.3	4.5
가공식품	18,128	18,289	18,855	19,553	22,474	41.9	14.9	5.5
- 스낵류	8,802	8,863	9,121	9,461	10,818	20.2	14.3	5.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199	5,240	5,384	5,571	6,620	12.3	18.8	6.2
- 편의식품	1,968	1,977	2,066	2,152	2,529	4.7	17.5	6.5
- 소스 및 향신료	1,039	1,050	1,083	1,124	1,195	2.2	6.3	3.6
- 스프레드 및 당류	893	930	966	1,001	1,064	2.0	6.3	4.5
- 영유아용 식품	227	229	235	244	248	0.5	1.6	2.2

*출처: STATISTA(2021)

나. 소비인구 및 특성

□ 2020년 인구 수는 3,826만 5,000명, 중위연령은 42세로 나타남

- 15~64세 인구가 전체의 66.0%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18.6%, 14세 이하 15.4%로 집계
- 14세 이하 유아 및 청소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증가

〈인구 추이(1990/2020)〉

(단위: 천 명,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19년	2020년	증감율 (1990/2020)
전체 인구 수	38,073	38,254	38,530	38,383	38,265	0.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9,495	7,294	5,856	5,888	5,878	△38.1
비중	(24.9%)	(19.1%)	(15.2%)	(15.3%)	(15.4%)	
15~64세	24,705	26,234	27,484	25,547	25,267	2.3
비중	(64.9%)	(68.6%)	(71.3%)	(66.6%)	(66.0%)	
65세 이상	3,873	4,726	5,190	6,947	7,120	83.8
비중	(10.2%)	(12.4%)	(13.5%)	(18.1%)	(18.6%)	

*출처: 폴란드 통계청(2021)

- 2020년 가계 가처분소득은 2만 4,220달러(한화 약 2,801만 원)로, OECD의 분류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 해당
- 동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9,500달러(한화 약 5,725만 원)로 전년 대비 1.7% 감소

<1인당 연간 국민총소득(GNI) 추이(2016~2020)>

(단위: 10억 유로,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비 (19/20)	연평균 (15/20)
43,642	45,652	48,096	50,364	49,500	△1.7	3.2

*출처: WorldBank(2021)

- 2020년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919즈위티(한화 약 58만 원)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반면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1,210즈위티(한화 약 37만 원)로 집계
- 2016년 이후 1인당 월평균 소득은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연평균 1.7% 증가에 그침

<1인당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2016~2020)>

(단위: 즈위티,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비 (19/20)	연평균 (15/20)
1인당 월평균 소득	1,475	1,598	1,693	1,819	1,919	5.5	6.8
1인당 월평균 지출	1,132	1,176	1,187	1,252	1,210	△3.4	1.7

*출처: WorldBank(2021)

- 2020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1,417달러(한화 약 164만 원)로 전년 대비 12.9% 증가
- 신선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823달러(한화 약 95만 원)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21.4% 차지
 - 육류 소비액이 1인당 연간 303달러(한화 약 35만 원)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낙농품 및 난류 203달러(한화 약 23만 원), 채소류 154달러(한화 약 18만 원)로 나타남

- 가공식품 소비액은 594달러(한화 약 69만 원)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41.9% 차지
 - 스낵류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이 각각 286달러(한화 약 33만 원), 175달러(한화 약 20만 원)로 높게 나타남
 - 편의식품 소비액은 67달러(한화 약 8만 원)로 집계되었으며, 소스 및 향신료 32달러(한화 약 원), 스프레드 및 당류 28달러(한화 약 3만 원)가 소비됨
 - 가공식품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이 전년 대비 19.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뒤이어 편의식품 17.6%, 스낵류 1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식품 유형별 1인당 연간 소비액(2016~2020)〉

(단위: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중
전체	1,160	1,173	1,209	1,255	1,417	100.0
신선식품	683	691	712	739	823	58.1
- 육류	251	254	261	271	303	21.4
- 낙농품 및 난류	171	173	178	184	203	14.4
- 채소류	127	129	133	138	154	10.9
- 과일 및 견과류	104	106	109	114	127	9.0
- 유지류	30	30	31	32	36	2.5
가공식품	477	482	497	516	594	41.9
- 스낵류	232	234	240	250	286	20.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37	138	142	147	175	12.3
- 편의식품	52	53	54	57	67	4.7
- 소스 및 향신료	27	28	29	30	32	2.2
- 스프레드 및 당류	24	25	25	26	28	2.0
- 영유아용 식품	6	6	6	6	7	0.5

*출처: STATISTA(2021)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규모 제외)

2. 소비트렌드

□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육류보다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 발생

- 스탠티스타에 따르면 2021년 채식주의자(비건 및 베지테리언)는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
- 유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8%가 더욱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폴란드 중앙통계청(GUS)은 소비자의 28%가 건강을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2019년 발표된 폴란드 육류 소비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
 - 2019년 1인당 연평균 육류 소비량은 61.0kg으로 2018년 76.9kg에서 15.9kg 감소
- 이에 폴란드 육류 생산업계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육류 제품을 출시하려는 동향을 보임

□ 소비자의 인식 향상으로 무첨가(Free from) 식품시장 성장세

- 식품알레르기, 유당불내증 등 식품 섭취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며 무첨가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무첨가 식품 시장규모는 9억 4,100만 즈워티(한화 약 2,788억 원)로 전년 대비 13.8% 증가
- 폴란드에서 주로 유통되는 무첨가 식품은 크게 알레르기 유발물질(대두, 우유, 계란 등) 미함유 제품, 락토오즈프리, 글루텐프리 제품 등으로 분류
- 아직까지 무첨가 식품의 97.4%는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남
 -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무첨가 식품 판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슈퍼마켓(26.0%)이며, 하이퍼마켓(23.7%)이 그 뒤를 이음

□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이어트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음

- 건강을 위해 고칼로리 식단을 제한하는 식품 섭취가 주목받으며 영양과 칼로리가 적절하게 구성된 다이어트 도시락이 주목받고 있음
- 2020년 다이어트 도시락 시장규모는 약 10억 즈워티(한화 약 2,964억 원)
- 여성 소비자의 경우 칼로리가 낮은 식단 구성을 선호하며, 남성 소비자의 경우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고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폴란드의 대표적인 다이어트 도시락 판매업체 쿠쿠와(Kukula Healthy Food)는 다이어트 도시락을 10개의 유형(칼로리별, 채식 주의자용 등)으로 분류하여 판매

<다이어트 도시락 제품 예시>



*출처: Kukula Healthy Food

□ 소득수준 향상 및 유기농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며 수요 증가

- 유기농식품은 주로 전문 판매점에서만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품목이었으나, 최근 유기농식품을 취급하는 현대식 유통채널 증가
- 이에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

<유기농 식품 및 매장 예시>



*출처: www.biopoland.pl, serwiskorporacyjnj.carrefour.pl

3. 유통현황

가. 유통현황 및 구조

□ 2020년 오프라인 유통채널 식품시장 규모는 2,560억 1,340만 유로(한화 약 346조 8,802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9%의 성장세를 보임

-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현대식 유통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88.6%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3% 증가함
 - 이 중 할인점(34.7%)과 편의점(24.3%)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할인점의 매출액은 885억 6,000만 유로(한화 약 119조 9,589억 원), 편의점의 매출액은 621억 9,000만 유로(한화 약 84조 2,395억 원)로 집계
 - 뒤이어 슈퍼마켓(15.4%) 334억 4,500만 유로(한화 약 45조 3,029억 원), 하이퍼마켓(9.6%) 245억 9,500만 유로(한화 약 33조 3,152억 원), 포코트 리테일러(4.6%) 118억 700만 유로(한화 약 15조 9,932억 원) 순으로 나타남
- 동년 전통식 유통채널 매출액은 291억 1,700만 유로(한화 약 39조 4,404억 원)로 전체 오프라인 식품시장의 11.4% 차지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합계	219,791.6	230,603.6	240,786.6	251,309.4	256,013.4	100.0	1.9	3.9
현대식 유통채널	177,374.9	190,157.0	201,417.3	215,884.8	226,896.1	88.6	5.1	6.3
- 할인점	60,568.1	67,499.9	72,783.2	80,221.1	88,859.6	34.7	10.8	10.1
- 편의점	46,762.8	50,353.4	53,143.4	58,215.3	62,190.3	24.3	6.8	7.4
- 슈퍼마켓	31,374.5	32,742.3	34,917.7	37,177.2	39,444.5	15.4	6.1	5.9
- 하이퍼마켓	29,472.7	29,843.2	28,678.9	27,923.3	24,594.7	9.6	△11.9	△4.4
- 포코트 리테일러	9,196.8	9,718.2	11,894.2	12,347.9	11,807.1	4.6	△4.4	6.4
전통식 유통채널	42,416.7	40,446.6	39,369.2	35,424.6	29,117.4	11.4	△17.8	△9.0

*주1: 포코트리테일러(Forecourt Retailer) - 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주2: 하이퍼마켓(Hypermarket): 슈퍼마켓·대형 할인점·백화점의 형태가 결합된 대규모 소매 점포

*출처: Euromonitor(2021)

-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2.1% 증가한 713억 4,000만 유로(한화 약 96조 6,422억 원)로, 이 중 99.7%가 전자상거래로 분류
 - 전자상거래 식품시장 규모는 711억 2,900만 유로(한화 약 96조 3,563억 원)로 전년 대비 42.3%, 최근 5년간 연평균 25.1%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홈쇼핑 식품시장 비중은 0.3%에 불과하며,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4% 감소한 2억 1,100만 유로(한화 약 2,858억 원)로 집계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합계	29,419.4	36,372.6	43,249.6	50,206.3	71,339.7	100.0	42.1	24.8
- 전자상거래	29,079.9	36,079.3	43,006.1	49,975.8	71,128.5	99.7	42.3	25.1
- 홈쇼핑	339.5	293.3	243.5	230.5	211.2	0.3	△8.4	△11.2

*출처: Euromonitor(2021)

나. 주요 유통채널 현황

□ (오프라인) 2020년 현대식 유통채널의 식품 시장규모는 256,013백만 유로로 전년 대비 1.9% 증가

- (할인점) 한 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점의 장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
 - 주요 할인점들은 소비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할인율을 더욱 높이거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전략을 취함

<주요 할인점 브랜드>

매장명	Biedronka	Lidl	Netto
사진			
설립연도	1995년	n/a	1995년
점유율	67.1%	26.6%	4.4%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편의점) 소비지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제약에도 식료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 잡음
 - 일부 편의점 채널은 커피 및 기타 식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을 꺼리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하여 무인 계산대를 설치하는 등의 차별화를 꾀함

〈주요 편의점 브랜드〉

매장명	Lewiatan (Eurocash SA)	ABC (Eurocash SA)	Zabka (Zabka Polska Sp zoo)
사진			
설립연도	1994년	1993년	1998년
점유율	13.4%	19.6%	15.3%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슈퍼마켓)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방문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슈퍼마켓 체인에서 옴니채널 기능을 포함한 온라인 스토어 개발에 집중
 -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배송해주거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소비자의 차 트렁크에 제품을 실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

〈주요 슈퍼마켓 브랜드〉

매장명	Dino (Dino Polska SA)	Stokrotka (Vilniaus Prekyba UAB)	Intermarché (ITM Entreprises SA)
사진			
설립연도	1999년	1994년	1997년
점유율	22.5%	10.8%	12.6%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하이퍼마켓) 소비자들이 거주지에 인접한 소형 매장(편의점, 슈퍼마켓)이나 다양한 품목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점을 이용하면서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감소세를 보임

〈주요 하이퍼마켓 브랜드〉

매장명	Tesco Extra (Tesco Plc)	Carrefour (Carrefour SA)	Kaufland (Schwarz Beteiligungs GmbH)	Auchan (Auchan Group SA)
사진				
설립연도	2008년	1997년	1984년	1961년
점유율	14.0%	16.1%	28.1%	34.0%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전통식 유통채널의 매출액은 291억 1,740만 유로(한화 약 39조 4,507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0% 수준으로 감소

- 현대식 유통채널의 이용률 증가로 전통식 유통채널을 찾는 소비자가 감소

〈주요 전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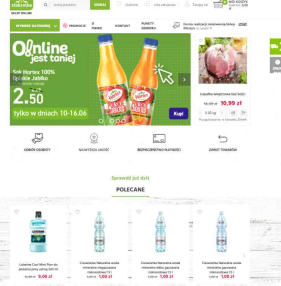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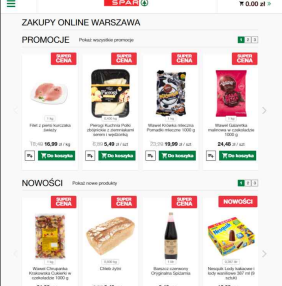
매장명	Polenmarkt Hohenwutzen	market place
사진		

*출처: Euromonitor(2021), tripadvisor

□ (온라인) 2020년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2.1% 증가한 713억 4,000만 유로(한화 약 96조 6,678억 원) 집계, 이 중 99.7%가 전자상거래(온라인 플랫폼)로 나타남

- (전자상거래) 코로나19로 많은 식품 소매업체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식품시장이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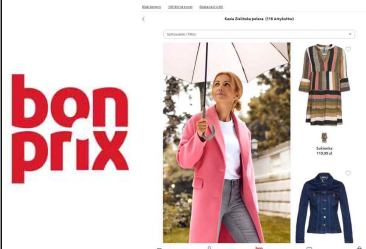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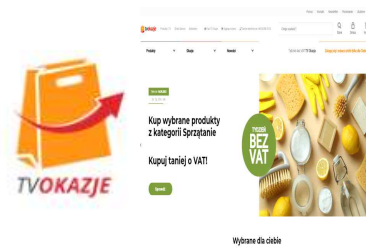
〈주요 전자상거래 브랜드〉

채널명	Biedronka	Zabka	Stokrotka	Spar
사진				
설립연도	1995년	1998년	1994sus	1996년
홈페이지	biedronka.pl	zabka.pl	stokrotka.pl	e-spar.com.pl

*출처: 각 홈페이지

- (홈쇼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홈쇼핑 역시 침체가 계속되어 2020년 21억 1,220만 즈워티(한화 약 6,413억 원) 집계
 - TV 홈쇼핑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가진 노인층이 잠재고객으로 유지되고 TV로 오락프로 시청을 좋아하는 폴란드인들임에도 불구하고 TV 홈쇼핑에 할당된 방송시간과 시청자의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
 - Bonprix는 2020년에도 홈쇼핑 채널 내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였으나, Mango 24는 2020년 8월을 끝으로 종료됨

〈주요 홈쇼핑 채널〉

채널명	Bonprix	Yves Rocher	TV Okazje
사진			
점유율	57.8%	4.8%	3.9%
홈페이지	https://www.bonprix.pl/	https://www.yves-rocher.pl/	https://www.tvokazje.pl/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Ⅲ. 농식품 정책 및 제도

1. 농식품 관련 정책

□ 폴란드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비만율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부터 특정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

- 설탕, 카페인, 타우린이 함유된 음료와 300ml 용량으로 판매되는 특정 알코올 음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
 - 설탕이나 첨가당이 함유된 음료에는 ℓ 당 0.5즈워티(한화 약 148원)의 세금이 고정적으로 부과되며, 카페인이나 타우린이 함유된 음료는 기본 설탕세에 0.1즈워티(한화 약 30원)가 추가
 - 알코올, 감미료 등이 첨가된 음료에 부과될 수 있는 최대 세금은 ℓ 당 1.2즈워티(한화 약 356원)로 나타남
- 과채주스와 에너지 음료, 특수 목적으로 유통되는 의료용 음료는 과세 대상에서 면제
- 폴란드 시장감시센터(Market Monitoring Center, CMR)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이후 청량음료 판매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설탕세 도입으로 무알코올 음료 가격은 10% 이상 인상되었고, 향료를 첨가한 미네랄 워터와 아이스티의 가격은 15% 인상

□ 「유기농식품의 가공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정(REGULATION (EU) No.2018/848)」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발효될 예정

- 이는 2009년 발효된 현행 유럽 내 유기농 규정(EC no.834/2007)의 개정판으로, ‘유기농 생산’을 표기한 제품이 EU의 엄격한 생산 및 가공 요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 또한 EU 유기농 로고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 본래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2차 법안 제정에 제약이 발생해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함
- 이번 개정안에서 수정된 유기농식품 관련 주요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①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②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 ③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을 골자로 함
- **(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유기농의 정의를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으로 확대하여, 유기농 규정이 넓은 범위에서 적용
 - 기존 규정에서 유기농은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으로 정의되었으나, 2022년 발효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 및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종자 및 기타 식물성 재생산물질)’로 정의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 확대된 유기농의 정의를 반영하여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주성분으로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의 사용을 허용
 - 기존 규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 성분을 주로 사용해야 하며, 비유기농 성분의 사용 시 유기농 생산에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은 후 제품 중량의 5%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음
 -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유기가공식품으로 생산 시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기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나노물질을 함유한 식품사용’과 ‘식품 가공처리 시 유전공학기술(GMOs) 및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 유기농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기재 시 원산지 의무 기재 기준을 완화
 - 기존 규정에서는 (i) 사전 포장된 유기농식품의 경우 EU 유기농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를 기재 (ii)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2%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ii) 항목을 수정하여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5%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확대 적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발효되어 EU로 제품 수출 시 추가 인증 없이 유기농식품을 표기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 유기농 제품 인정 범위 및 유기농식품 표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4월부터 EU 국가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경우 새로운 복합식품 규정 적용

- 복합식품이란, ‘육류, 뼈와 내장과 같은 부산물, 수산물, 유제품, 난류, 꿀, 로열젤리, 젤라틴, 콜라겐 등 동물성 재료를 가공한 동물성 가공식품과 제조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필수적이거나 맛, 향, 점성 등 특별한 성질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식품’을 의미
- 예를 들어 참치 통조림은 식물성 오일과 수산물이 혼합된 식품이지만, 식물성 오일은 품질 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물질이므로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 반면 굴 추출물(수산물)과 간장(식물성 재료)이 혼합된 굴 소스는 복합식품에 해당
- 기존 규정에서 복합식품 적용 기준은 ①함량이 무관한 식품과 ②함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식품으로 분류
- (함량 무관 식품) 식육 또는 유제품을 함유한 비 상온 보관식품은 동물성 가공식품의 함량과 상관없이 복합식품으로 규정
- (함량 기준 분류) 식육 및 비상온 보관 유제품을 제외한 동물 유래 제품의 동물성 가공식품 함유량(50%)을 기준으로 분류

- 개정된 규정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①비 상온 보관 식품 ②식육 함유 상온 보관 식품 ③상온 보관 복합식품으로 분류
- ‘비 상온 보관 식품’과 ‘식육 함유 상온 보관 식품’은 수출입 검역 품목 대상으로 수출국의 공식증명서(Official Certification)를 제출하도록 함
- ‘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사설 인증서(Private Attestation) 제출이 요구됨
 - 다만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 중 저위험 식품(파스타, 빵, 제과류 등)은 수입 검역 대상 품목에 해당
 - 또한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유제품, 난류, 수산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품목이 EU가 승인한 수입국에서 생산되어야 함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폴란드의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적하목록 사전제출 → ②물품 반입 → ③ 물품신고 → ④검사 및 검역 → ⑤관세납부 및 반출 순서로 진행됨

단계	내용
적하목록 사전제출	○ 운송인이 관할 세관에 제출하는 정보 - 화물 상세 정보(물품명,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등의 인적 정보(AEO 인증 여부 포함) - 운송 항로 등 운항 정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2012년 1월 1일 이후 시행) - 기한 내 적하목록 미제출(1회 이상) - 적하목록 허위 제출(3회 이상)
물품반입	○ EU 지역 수입 물품의 통관 前 반입 장소(보세구역) - 세관 지정 세관 사무소 - 세관 지정 내지는 승인한 기타 장소 - 자유지역(Free Zone) - 상기 장소에서의 물품 반출, 검사 및 샘플 채취 등은 세관 허가 대상 ○ 수입물품 도착 보고 - 다음 해당자는 보세구역 반입 즉시 도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 수입물품 운송인 및 대리인, 통관절차 이행 대리인, 보세구역 운영인 등 ○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은 원칙적으로 세관 허가 대상 - 긴급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관 즉시 통지 후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 가능 - 검사, 샘플 채취 및 운송 수단 검사 목적으로 세관은 수입물품의 하역 또는 포장 개봉 요구 가능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 (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의 신고 방식 - 세관의 통관 시스템 전송 방식(인터넷) - 서면 신고서 세관 제출 방식 ○ 세관은 일부 수입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기 제출된 수입신고서 관련 서류 검증 및 추가 자료 제출 - 수입물품 검사, 분석 및 샘플 채취 ○ 폴란드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보건당국에 제품 출시 허가를 제출하여 수출 이전 사전승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전승인 프로세스는 약 1개월 소요됨 -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검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식 수입이 보류될 수 있음 ○ 사전승인받은 이후에는 폴란드 통관 시 필요한 기본 서류를 구비할 경우 통과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음 · 수입자의 위생검사 요청, 송장, 상품명세서, 물품의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송장, 운송 서류, 공인 연구시설 또는 제조자가 발급한 제품 및 원재료의 화학성분 분석, 수입과 관련하여 생산자가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모든 문서의 폴란드어 번역본

단계	내용
검사 및 검역	○ 식물검역대상은 수입하는 식물, 구근, 종자, 절화, 과실과 채소, 흙 배양체, 일반화물의 목재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식물의 위생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그리고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임 ○ EU 동물 검역제도에 따라 허가국 외 제3국으로부터 육류 및 유제품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제품 수입 허가국 리스트에 제외되어 있음
관세납부 및 물품반출	○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 보유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며 6,000유로 이하의 수출 시에는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 - 6,000유로 이상의 수출 시에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 ○ 폴란드는 국내산 및 수입산 농축산물과 식료품에 대하여 가공정도에 따라 감면부가가치세(5~8%)와 표준부가가치세(23%)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세율은 다음과 같음 · 5%의 부가세 : 신선식품, 감미료, 낙농품, 어류 조제품, 밀가루 조제품, 과일 조제품 등 · 8%의 부가세 : 그 외 가공되지 않은 식품 · 23%의 부가세 : 가공정도가 높은 식품

*출처: 관세청

나. 검역제도

□ 산 동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nary Checks)에 따라 사전 검역 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

- 식물의 경우 위생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 가능
 - 수출입 금지 식물에는 벼, 황겨, 벧집과 그 가공품, 호도의 열매와 핵자, 가지과 식물의 생과실 및 흙, 살아있는 병해충 등이 포함됨
- 동물 및 축산물의 경우 검역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제출 필요
 - 동물성 가공식품은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식품 목록의 변경으로 인해서 검사 면제 대상이었던 식품들도 조건을 만족 필요
 - 변경된 목록에는 육류를 함유한 제품, 충전된 젤라틴 캡슐,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기타 식품 보충제/첨가제, 알코올성 음료,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키토산 및 유사 성분을 함유한 소매용 식품보충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제품들의 수의학적 검사 필요
 - 복합식품은 식물재료와 결합된 동물성 가공 농산품을 함유한 인체 섭취용 식품으로 가공육, 가공 유제품(냉동), 저장기간이 안정적인 경우 50% 이상의 유제품, 50% 이상의 가공 수산물 및 난제품을 함유할 경우 위생증명서가 요구됨

- EU 동물 검역제도에 따라 허가국 외 제3국으로부터 육류 및 유제품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제품 수입 허가국 리스트에 제외되어 있음

□ 화훼류 검역은 EU에 수입되는 특정 식물에 대해 병충해 방지 및 수입국에서 사전에 검역 및 안전한 식물이라는 내용을 담은 식물위생증명서(병충해 방지 및 안전한 식물임을 인증)를 작성하여 통관 시 반드시 제출

-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수송일 14일 전 검사,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발급 여부, 위생검역증의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발행되었을 경우 영어 번역본 첨부 등이 필요
- 화훼류 또는 목공품 수입 시 포장에 쓰이는 나무 패키징에 대해서도 규제
 - 제품 겉면을 포장하는 패키징 외에도 물건과 물건 사이를 지지하는 지지대, 받침대, 팔레트 등이 모두 해당되며, 병충해와 같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무를 재료로 한 목재 박스가 유럽 회원국 도착 후 만일에 있을 해충 및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현재 EU 국가로 수출 가능한 품목은 총 7개 품목 77종이며, 감자, 여주, 감귤 묘목은 수출이 불가함

- 해당 품목 외 수출 가능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수출가능 품목	· 곡류(8)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11)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밤,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17)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 종자류(16)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가지, 파, 양파, 상추, 토마토 · 버섯류(8)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7)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 화훼류 기타(10) : 선인장(절목선인장), 심비디움, 난초, 백합, 글라디올러스,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국화, 튤립
수출불가 품목	· 감자, 여주, 감귤묘목

*출처: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 특히 2021년 7월 5일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 요령」이 개정되며 해당 고시에 따라 관리 후 수출이 가능해짐
- 신선 감귤 수출을 위해서는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 함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 <i>Xanthomonas citri</i> pv. <i>citri</i> · <i>Xanthomonas citri</i> pv. <i>aurantifolii</i> · <i>Pseudocercospora angolensis</i> (T. Carvalho & O. Mendes) Crous & U. Braun · <i>Phyllosticta citricarpa</i> (McAlpine) Van der Aa
수출단지 지정신청	· 생산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선과 30일 전까지 지정 신청 필요 -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수출단지 요건	·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 4조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를 보유하여야 함 - 해당 수출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이 운영되어야 함 - 1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확보하여 수출단지를 관리하여야 함
재배지 관리	·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에서 지정한대로 관리되어야 함 - 농산물의 병해충 감염 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 적절한 방제를 실시해야 함 -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을 경우, 수출용 농산물 재배지에 품명, 재배면적, 재배자명 및 수출국을 표시한 표지판의 설치가 요구됨 -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을 경우, 방제상황을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방제가 소홀한 농가의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농가 및 관리책임자는 농산물의 수출검역 요건 준수를 위해 매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요건 교육의 이수가 요구됨
재배지검역 신청	·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선과 30일 전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함 - 매년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함
재배지검역	·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에서 지정한대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해야 함 -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할 경우, 트랩을 설치하여 특정 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지검역결과 기록부에 이를 기록해야 함 - 재배지검역결과 기록부는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되어야 함 - 수입국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재배지는 불합격 조치됨
선과	·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EU 수출용 감귤류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감귤류 생과실을 Sodium orthophenylphenate(SOPP) 또는 해당 약제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약제를 활용하여 소독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수출검역	·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함 - 검역 결과 지정한 바와 같이 검역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아래의 문구를 명기하여야 함 <i>"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VII, points 57, 58. option(d), 59. option(a), 60. option(d) and 61. option(a) of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 (동과실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ANNEX VII, 57, 58(d), 59(a), 60(d) 및 61(a)에 부합함)</i>

- 분재류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 검역요령」에 따라 관리 후 수출이 가능함
- 국화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 함

1) 부록VII,4 : *Thrips palmi* Karny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Thrips palmi* Karny 무발생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확하기 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Thrips palmi* Karny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수출하기 전 공식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2) 부록VII,7,b : *Bemisia tabaci* Genn 관련

- 생육 기간 동안 관련된 유럽연합 검역병해충의 증상이 없고,
- *Bemisia tabaci* Genn 없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확하기 전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Bemisia tabaci* Genn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Bemisia tabaci* Genn 박멸을 위해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3) 부록VII,8 : *Liriomyza sativae* (Blanchard), *Amauromyza maculosa*(Malloch)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Liriomyza sativae* (Blanchard), *Amauromyza maculosa* (Malloch) 무발생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출하기 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Liriomyza sativae* (Blanchard) 및 *Amauromyza maculosa* (Malloch) 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수출하기 전 공식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4) 부록VII,9 : 초본성 다년생 재식용 식물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식물의 부스러기, 꽃 및 과실이 없고,
- 수출 전 적절한 시점에 검사를 하였고,
- 유해 세균,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유사 생명체의 증상이 없고,
- 유해한 선충, 곤충, 응애 및 곰팡이의 증상이 없음이 확인 되었거나 또는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

5) 부록VII,25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 관련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의 증상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할 수 없었거나,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처리가 되었음

6) 부록VII,26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 관련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 없는 국가에서 재배되었거나,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배되었거나,
- 공식적인 검사와 실험에 의해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없는 생산지에서 전 생육기간 동안 재배되었다는 증명

※ 소독처리 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다. 라벨링 제도

□ 식품 표기는 EU 라벨링 제도를 따르고 있음

- EU는 건강 및 인체에 직결되는 식품 관련 규정이 엄격해 성분 등 상세정보를 라벨링에 표기하도록 함
- 라벨링 표시 사항은 모든 식품(음료수 포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표시 사항과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선택적 표시 사항으로 구되며, 의무 표기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제품명
 - 성분 및 성분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성분
 -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및 이름 및 주소 또는 EU 내 수입·판매업자
 - 섭취방법(섭취방법 부재 시 식품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 Net용량, 영양성분, 알코올도수(1.2% 이상의 알코올 음료에만 해당)
 - 원산지(원료의 일부가 제품의 원산지와 달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경우)
-

- 유럽 내 유통되는 식품(음료수 포함)의 경우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표기해야 하는데, 표기가 필요한 알레르기 유발 항원 인자는 다음과 같음

• 셀러리 •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는 곡물(밀, 귀리, 보리, 호밀 등) • 갑각류 • 계란 • 어류 • 루핀 • 우유(락토즈 포함)	• 이미패류 • 견과류(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캐슈넛, 피칸, 브라질넛,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넛, 퀴즐랜드넛) • 깨 • 대두 • 10mg/kg 또는 10mg/liter 이상으로 농축된 아황산 및 아황산염
--	---

□ 건강식품에는 정확성이 결여되고 애매모호하며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하도록 만들거나 허위내용이나 의학적 효과를 준다는 내용의 카피문구 사용이 금지됨

-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카피문구를 라벨이나 광고와 홍보에 사용하려는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함

- 건강식품, 어린이용 식품과 같이 카피 문구의 삽입이 필요한 제품에 관해서 법규를 어기고 판매될 시 판매 금지 및 수거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라벨에 들어갈 문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유럽위원회는 EU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시장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5월 28일 식품 주요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새로운 라벨링 규칙을 채택

-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유럽위원회의 식품 라벨링 규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 용이한 정보 전달을 위한 최소 글씨 크기 규정
 - 가공식품 내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 있는 성분의 경우 명확한 표기
 - 가공식품의 경우 명확한 영양성분 표기
 - 식물성 성분 원산지 표기
 - 육류, 생선 포함 식품의 경우 명확하게 표기
 - 해동 식품의 경우 명확한 표기
-

- 육류 및 육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돼지, 양, 염소 등 육류 및 가금류의 원산지 표시: 고기 양육 및 도살 장소에 대한 표시는 Regulation(EU) No 1337/2013 채택
 - 식품 재료로 사용된 육류 원산지 표시 : 식품 주성분으로 사용된 육류의 원산지 표기 필수
 - 육류 외 식품 원산지 표시 : 식품의 50% 이상 차지하는 성분의 원산지 또는 발생지 표기 필수
-

- 식품업체의 다양한 식품 가공 방법을 고려해 책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對폴란드(EU) 농식품 수출 절차



1



>>>

2



>>>

3



<<<

중인경제운영(AEO) 인증 획득

(필요 시) AEO 인증 중 1개 선택 취득

- AEO C : 세관 간소 인증으로 절차 간소화
- AEO S : 보안 안전 인증으로 사전신고 용이, 세관 검사 혜택 부여
- AEO F : 세관 간소 및 보안 안전 혜택 부여

현지유관부처 폴란드 관세청

세관등록번호(EORI) 발급

통관 시 EORI 번호* 사용 의무

*EU에서 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통관고유번호

현지유관부처 폴란드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필요 시)

수입신고 시 사용할 품목분류 코드 확정

- 정확한 세분 상품 분류번호 파악

현지유관부처 폴란드 관세청

5



<<< 선적 및 운송 <<<

4



수입신고

제출서류

- ①수입신고서 ②운임보험 ③상업송장 ④포장명세서 ⑤선하증권
- ⑥원산지증명서 ⑦관세가격보고서 ⑧기타 세관 요구 서류

현지유관부처 독일 관세청

적하목록(ENS) 제출

화물 유형에 따라 제출시기 상이

- 해상화물: 출발지 선적 24시간 전
- 장거리 벌크화물: EU 최초항 도착 4시간 전
- 철도/운하운송 화물: EU 세관 도착 2시간 전

제출정보

- ①화물의 상세 정보 ②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정보
- ③운행 정보(운송 경로 등)

현지유관부처 폴란드 관세청

6



>>>

통관 및 검역

서류검사 및 물품검사

- 수입신고서 요건 충족 시 수입신고 수리
- (필요 시) 검사 및 샘플 채취

(동·식물 제품) 국경통제소(BCP) 검역 요구

현지유관부처 폴란드 관세청

회원국별 지정 국경통제소(BCP)

7



>>>

관세납부

(필요 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필요

현지유관부처 폴란드 관세청

8



반출(합격 시)

라벨 제작 표기언어: 폴란드어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원료(성분)목록 ③알레르기 항원 정보 ④특정 성분 함유량 ⑤실 중량 ⑥보존기한/소비기한 ⑦보관방법 ⑧원산지 ⑨사입자 정보 ⑩사용방법 ⑪도수(필요 시) ⑫영양성분표 등

2021년 12월 기준

KaTi
농식품수출정보